

# NEWS

2025년 5월 12일 월요일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입장권

티켓링크·네이버 등 사전예매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사무국이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입장권 사전예매에 들어갔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올해 비엔날레는 '문명의 이웃들(somewhere over the yellow sea)'을 주제로 오는 8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목포, 진도, 해남 일원에서 개최된다. 아시아의 바다를 매개로 연결된 수목화의 성립과 세계적 확산을 재조명하기 위한 국내외 작가들의 다채로운 전시가 펼쳐질 예정이다.

사전예매 할인 기간은 8월 29일까지다. 티켓링크, 네이버,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사무국을 통해 사전 예매할 수 있다. 행사 기간에는 6관을 제외한 1관 목포문화예술회관, 2관 실내체육관, 3관 남도전통미술관, 4관 소전미술관, 5관 땅끝순례문학관의 현장 대표소에서 구매할 수 있다.

사전예매 할인기간 입장권을 예매하면 성인권은 현장 구매가보다 30% 할인된 7000원, 청소년은 3000원(현장 5000원), 어린이는 2000원(현장 3000원)으로 구입할 수 있다. 박정렬 기자 holbul@

## ▶1면 '막으론 대선'서 계속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0일 새벽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한덕수 후보를 영입해 교체하는 절차에 착수했지만, 당원들이 부결시켰다.

지난 11일 대선후보 등록을 마친 김 후보는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행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는 자리"라며 "반드시 당선돼서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한 나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12일 새벽 여수 국가산업단지에서 첫 공식 유세에 돌입한다. 금호피앤비화학 여수 2공장을 둘러보고 근로자들과 만나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 후보등록을 마치고 "계엄으로 국민을 위협에 빠뜨렸던 세력도 심판받아야 하고 이제 기고만장해서 삼킨 분림까지 위협하려고 하는 또 다른 세력도 막아내야 한다"며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도약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후보로서 역할이고 소명"이라고 밝혔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와 무소속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도 본선에 나선다.

당초 출마를 선언했던 김재연 진보당 대선 예비후보는 지난 9일 출마를 포기하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 대통령도 총리도 없는 5·18 기념식

# 민주당 이재명 참석·국민의힘 김문수는 미정

## 후보들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메시지 주목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997년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 권위 상태에서 열리게 됐다.

▶관련기사4·5면

또 국무총리도 참석이어서 올해 기념식은 정부 기념사보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메시지에 더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11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오는 18일 치러지는 기념식에는 권위 상태인 대통령·총리 대신 장관급 정부 인사 등이 주빈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그동안 5·18 기념식은 대통령 참석 여부로 관심을 끌었다.

기념식은 1997년부터 정부에서 주관했지만, 대통령 참석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 2000년 20주년 기념식이 처음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5년 동안 매년 기념식에 참석했으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에만 참석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세 차례 기념식장을 찾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취임 첫해인 2022년 기념식에서 유족들에게 "매년 오겠다"고 약속한 뒤 3년 연속 참석했다.

정부 대표 다음으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고 의전 서열자다. 우 의장은 기념식 전날 열리는 5·18 전야제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최근 몇 년간 5·18 기념식 메시지는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약속 여부가 화두였지만, 대통령 권위와 대선 등 상황을 고려하면 시선은 대선 후보들의 입으로 옮겨가게 됐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포함해 선대위 관계자들과 다수 의원이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후보가 오는 17~18일 광주 유세에서 5·18 헌법 수록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의지를 밝힐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대선후보 교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기념식 참석 여부까지 예측하기 어렵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대거 참석했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역시 올해는 개별적 참석이 예상된다.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의원은 강기정 광주시장의 초청을 받아 5·18 행

사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민주노동당, 새미래민주당 등 각 정당 대표와 대선 후보들도 기념식장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대통령 권위 상태에서 치러지는 올해 기념식은 5·18 정신 헌법 수록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입장이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며 "짧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 5·18을 계기로 광주 민심에 호소하는 집중 유세가 연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강기정 광주시장 등 최근 동구 남동 일원에서 열린 '서남동 복합거점시설 착공식'에 참석해 시삽식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 광주 동구 인쇄의 거리 복합거점시설 '첫 삽'

211억 투입·지하 1층~지상 7층 규모...내년 하반기 완공

광주 인쇄산업의 부활이 기대되는 '인쇄의 거리 복합거점시설' 건립공사가 첫 삽을 떴다.

11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지난 9일 남동 180번지에서 인쇄의 거리 복합거점시설 건립 공사 착공식이 개최됐다.

착공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안도걸 국회의원, 임택 동구청장, 문선화 동구의장 등을 비롯한 주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해당 시설은 지난 2019년 광주시와 동구가 협력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주변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11억원(국비 106억원·시비 52억원·구비 53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지상 7층, 연면적 5744.67㎡ 규모로 조성된다.

동구는 2020년 3월부터 거점시설 부지

매입을 시작으로 2023년 3월 건축설계 공모심의위원회와 건축설계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건축협의 신속화가 및 설계 관련 인증 신청을 추진했다.

지난해 11~12월 건축공사 공사발주 방침을 수립하고 시와 건축공사 계약 심의를 마쳤다.

동구는 지난날까지 건설사업관리자 선정 절차 등을 거쳐 2026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설계안을 보면 주차장은 기계식 주차장 지하 1층(32면)과 지상 2~5층 지주식 주차장(69면)으로 조성된다.

1층은 동구 문화콘텐츠, 인쇄업 홍보 등으로 구성된 플랫폼이 들어선다. 6층은 인쇄·출판 관련 전시시설, 체험 공간 등

으로 구성된 인쇄 아카이브와 회의실, 직원 휴게실 등이 조성된다. 7층에는 인쇄 도시재생 스타트업 8곳이 입주할 공간을 마련했다. 시설 이용객과 보행자가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식공간도 제공한다.

동구는 복합거점시설을 통해 유동인구가 구시청사거리, 충정로, 금남로 등을 다니며 접해던 거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용역사는 각각 (유)디알씨총원건설, 마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다.

강기정 시장은 "인쇄의 거리는 1980년 민주화 관련 유인물을 생산하는 민주화운동의 산실이라고 기억한다"며 "도심 공동화 현상이 깊어졌지만 도시재생 사업으로 활력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 이재명 30억·이준석 14억·김문수 10억

대선 후보등록...재산·납세·병역 등 신고

11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 결과, 대선 후보들은 재산·납세·병역 등 신상 정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21대 대선 후보자 등록을 접수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60), 국민의힘 김문수(73), 개혁신당 이준석(40), 민주노동당 권영국(61), 자유통합당 구주와(45), 무소속 송진호(57), 무소속 황교안(68) 등 7명이 등록했다.

이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0억8914만3000원을 신고했다. 이 후보는 배우자 공동 지분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소재 아파트(14억5600만원)를 비롯해 예금(1억4077만2000원) 등을 등록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본인 명의의

서울 노원구 소재 아파트(7억2800만원)와 예금(3억5287만5000원) 등을 더해 14억789만7000원을 등록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25억193만8000원, 자유통합당 구주와 후보는 17억4119만3000원, 무소속 송진호 후보는 2억8866만5000원, 무소속 황교안 후보는 33억1787만5000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3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10억7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바 있다.

전과 기록은 송진호 후보 17건, 권영국 후보 4건, 이재명 후보 3건으로, 병역 사항의 경우 이재명 후보가 골절 후 유증으로 전사근로여 판정을 받았고 이준석·구주와·송진호 후보 등은 군 복무를 마쳤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 영암 풀치터널 상행선 오늘부터 전면 차단

익산국토청, 2개월간 비탈면 보강공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국도 13호선 영암 풀치터널 상행선 출구부 비탈면 보강 공사를 위해 상행선 2개 차로를 12일 오전 9시부터 전면 차단한다고 11일 밝혔다.

풀치터널 상행선(강진→영암) 2개 차로를 차단하고, 중앙분리대 철거 후 하행선(영암→강진) 중 1개 차로를 상행선으로 임시 사용할 예정이다.

비탈면 보강공사는 지난해 9월 집중 호우로 터널 출구부 비탈면이 유실돼 라블

트, 슛크리트 등 시공을 위한 것으로 약 2개월 간 진행될 예정이다.

시인성 증진 및 도로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로봇신호, LED 표지판, 원카호스, 유도차선 등도 설치할 예정이다.

익산국토청 관계자는 "이번 풀치터널 상행선 차단은 비탈면 보강공사를 위해 불가피한 안전조치로, 도로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송대영 기자 sdw0918@gwangnam.co.kr



**만남, 당신에 이상형!**

# 바로연

에서 인연을 만나다.

초혼·새혼 결혼전문업체 바로緣 1644-5432/062.381.000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173 대영빌딩 3층 (상무지구 롯데마트 옆)